

## 제73회 제1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0월 21일 상오 10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0월 21일 하오 12시 4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전원 16명중 출석의원 14명

결석 이정권,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서무과장 차영균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제72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통과

2. 건의문 발송 상황보고(대 해양고교)

3. 진정서 접수상황보고(수도관계)

나. 부의안건

1. 부의장 선거의 건

2. 각 상임위원장 호선의 건

3.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단기 4290년도 제2회 목포시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 건

5. 목포시 교육위원회 기본재산적립금 전입 승인 안

6.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 안

다. 토의사항

※ 제72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통과

박찬대 서기 낭독

◇정 응 표 의원

- 제72회 회의록 말미에 장내소란으로 인하여 속기불능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본 의원의 발언 중에 언론기관을 모욕한 것 같은 인상을 준 것 같은 보도가 있었으나 실은 그것이 아니었고 일부의원들의 처사를 반박하고자한 것이 흥분된 나머지 오해를 남기게 된 것 같으니 이를 정식으로 공식석상에서 취소하는 것이고 또 사기운운의 발언은 약속위반이란 뜻이었으니 양해하여주기 바란다.

※ 그 외 이의 없음으로 통과

◇김 경 인 의원

- 정응표 의원의 발언이 누락된 점은 추완하여 주기 요망한다.

※ 목포해양고등학교 건의문 발송결과보고

박찬대 서기 건의문 낭독

◇김 삼 성 의장

- 저반 공식은 아니지만 시장실에서의 좌담회 결의로 본인 외 두 의원이 태극호문제로 상경한 바 있었으나 본 건 해양고등학교 문제와 사범학교 문제도 아울러 제출한 바 있으니 학교 교섭 관계를 김성균 의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요망하는 바입니다.

◇김 성 균 의원

- 사범학교문제는 중앙의 방침이 1도 1교주의를 구상한 것 같으나 문교당국과 절충한 결과 앞으로의 당 시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비관적은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고등학교문제에 있어서도 문교부차관에게 진언하였더니 국립이라 하여 국가에다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방자체에서 육성하여야 된다는 말이 있었기로 빈약한 당시 재정에서 백만원 가량 염출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여 문교부차관도 극력 노력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김 상 대 의원

- 태극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일행이 김성호 의원과 동도 교통부장관을 방문하였던 바 이 문제에 대하여 단호 부인하면서 안심하고 내려가라는 말을 들었었으나 당무자인 운전과장을 만났더니 다소 이설을 시인하는 것 같기에 반위협적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시켰으며, 익일은 당시출신 정중섭 의원, 김성호 의원과 동도 문장관을 방문하고 원상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약을 받고 귀임 하였습니다.

◇김 상 태 의원

- 수 일전에 사무로 중앙에 들렀을 때 이 문제를 위요하고 광주시에서 맹렬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정중섭 의원을 모실 운전과장을 방문 타진하였던 바 고아 주축이 헛된 낭설일 것이란 말을 듣고 왔던 것입니다.

※ 호남동 동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접수 상황보고(수도관계)

박찬대 서기 전정서 낭독

◇김 창 희 의원

- 소개의원으로서 보충설명

◇김 삼 성 의장

- 내무위원회에 회부선언

◇김 삼 성 의장

- 정응표 의원의 징계 동의 안이 제출되었다 이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자측과 상의하기 위하여 5분간 휴회할 것을 선언 (11시 현재)

◇김 삼 성 의장

- 속개선언 (11시 7분 현재)

◇김 경 인 의원

- 전차회의록에 정 의원이 개인지명 인신공격에 대한 발언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당시 정 의원의 발언에 뒤이어 본 의원에게 발언권이 부여되자 김상대 의원이 사회자인 의장에게 불미스러운 언사를 하였으며 정응표 의원이 김상대 의원과 합세하여 의사당내의 기물을 파괴하였던 것이 이 안을 제기하게 된 동기인 것이다.

정응표 의원이 발언한 대홍사행의 약속위반 운운한데 대한 내용 해명 발언 생략(초안참조) 그리고 이날 정응표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언론기관을 종용하여 신문기사를 취재하였다는 등 발언을 하였다.

앞으로의 의사 진행에 이와 같은 전철을 안 밟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김 삼 성 의장

- 징계 동의 안에 대한 도와의 전화 조복관계로 일시휴회

◇김 삼 성 의장

- 부의장 선거 실시 선언

※ 김상태, 김경인, 조양순, 박두순 의원 퇴장

11시 55분 현재 재석 10명

◇ 김 상 대 의원

- 거금 개대월여에 공하여 부의장 및 각상임 위원장 선거를 위요하고 개인 대 개인 감정을 유발시켜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은 실로 한심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회의가 있을 적마다 각종법규 조문을 적용시켜 떠들어대는 것이 야당계의원 이거늘, 어찌하여 회의 규칙 제75조를 해석 못하고 징계 동의 안을 이제야 제출하는가하면 저반에는 의회 해산 결의안 등을 제기 시켜 민심을 혼란케 만들고 인기전술을 감행하는 등 처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오늘도 일부의원 등이 퇴장전술을 쓰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니 공정한 비판을 하여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김 남 진 의원

- 네 의원의 퇴장으로 부의장의 선거는 정족수 미달로 실시 불능이니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부의안건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심의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결과 재석 10명 만장일치 가결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박찬대 서기 제안 이유 설명

◇ 명 남 철 의원

- 본 건 자동차 수선상 불가피의 것이니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재청...3청

◇ 김 일 섭 의원

- 본 건 상임위원회 회부 심의하게 할 것을 개의 ..재청...삼청 표결결과

김일섭 의원 개의 - 재석 10명중 가 3표 부결

명남철 의원 동의 - 재석 10명중 가 6표 가결

※ 단기 4290년도 제2회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 예산 심의 건

### ◇교육위원회 경리주무

- 제안이유 설명

### ◇김 상 대 의원

-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전개할 것을 동의 재청...3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 성 균 의원

1. 당초교육위원회 예산안을 통과 당시 전 신 교육감은 1,500만원의 중앙보조를 받아올 것을 전제로 통과 시켰던 것인데 현 박 교육감은 추호의 가망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여하
2. 박 교육감이 상경지연 이유 여하
3. 귀임 후의 결과 여하
4. 학교운영의 경상비 조절책 여하

### ◇김 상 대 의원

1. 2개월간에 여하히하여 신설 국민학교를 신축할 것인가  
그리고 항간에 유포된 말에 의하면 대지선정도 못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 여하
2. 중앙 국민학교 신축교사는 어느 때쯤 아동들을 수용하여 공부 할 수 있게 하겠는가

### ◇김 남 진 의원

- 교육감 선생 경질 후 청내 직원간의 공기를 살피면 아직까지 그 인화도모가 안이루어 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안 및 쇄신의 방안은 없는가

### ◇김 창 희 의원

- 중앙 국민학교 신축교사에 공사청부업자가 악재를 사용하여 얼마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풍문이 있는데 이의 감독은 어떻게 하였었는가

◇천 철 수 의원

- 과거 추경예산 통과 당시 서무과장은 과년도 미수입액을 1.700만환 완전 징수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는데 우금 지지부진한 현상에 놓여있는 이유 여하

◇명 남 철 의원

- 위생비 및 급식경비에 있어서 과반 교육위원회 개최당시 예비비에서라도 주자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과목조차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 이유 여하 그리고 당초 연산에 보조내가 없는 국고보조 1.500만 환을 계상한데 대하여 차 과장은 만약의 경우에는 인책사임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고 기억된다.

이에 따르는 신설학교 부지 구입비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면 차 과장의 인책사임을 강요하면서 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 판매용을 삭감하여서라도 국민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라도 계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 응 표 의원

- 예치하여 두어야 할 금액이 그리 안되고 타처에 유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천명하여 주기 바란다.

◇박 세 문 교육감 답변

- 1.500만환 국고보조 문제는 상경지연 문제에 있어서 중앙의 유씨가 왔다가 후 대한면업 모씨가 올라가서 사견이란 말을 들었다. 그후 유 부의장과 상격절충 하였으나 난망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국민학교 신축교사 문제는 아직 심사를 앓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식비 문제는 인쇄 착오이었을 것이고 청내 인화문제는 추후 조치하겠습니다.

또 과년도 미수 1.700만 환은 년도 폐쇄기까지 전력을 경주하여 징수하려 합니다.

◇김 삼 성 의장

- 부의안건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상임위원회에 회부심의 할 것을 선언

◇김 삼 성 의장

- 폐회선언 하오 1시 4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일함

단기 4290년 10월 2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 제73회 제2차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0월 23일 상오 11시 15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0월 23일 상오 12시 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1명

결석 박두순, 강영락, 이정권, 김일섭, 김상태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各科장

교육감 박세문

7. 의사일정

가. 보고사항

1.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상황보고

2. 진정서(호남동 주민) 처리 상황보고

3. 공익 전당포 복구건의안 접수상황 보고

4. 시청 및 각 사업장 각 동 교육청 사무감사결의안 접수 상황보고

나. 부의안건

제73회 제1차 회의시와 동일함

다. 토의사항

박찬대 서기 박두순, 김일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청가원 낭독

※ 문교사회 위원회 회의상황보고

◇김 상 대 의원

- 금조 8시부터 교육청 회의실에서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최할 신설학교 부지 선정 및 제설계 등 상세한 명세서를 재산취득결의안 부의시 제출할 것을 조 건부로 4대1로써 통과를 보았습니다.

◇김 삼 성 의장

- 본 건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

※ 진정서(호남동 주민) 처리결과보고

◇김 경 인 의원

- 본 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임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공익전당포 복구 건의안

박찬대 서기 낭독

◇하 동 현 시장

- 본 건 공익전당포 복구 문제는 여러분이나 동감입니다 마는 385만여환의 기채를 재원문제로 상환불능의 현실에 있고 복구 공사비로 400만환 축적해 놓은 것이 있으나 창고 사무소등 신설 소요되는 재원염출 방도를 당국과 절 충 중에 있는 실정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응 표 의원

- 남교동 공익전당포의 화재로 말미암아 영세 시민과 약소 공무원들의 입질 물에 대한 피해액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본 건 계속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재정이 궁핍한 가운데라도 피해자들에게 1할정도의 변상이라도 하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여 참고로 말한다.

◇하 동 현 시장

-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견해 여하문제는 제외하고라도 시장의 심정으로 전액을 변상하고 싶은 심산이나 특수한 기채를 하면 모르되 현재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인 것입니다.

◇김 경 인 의원

- 집행부 측의 증언에 의하면 본 건 전의를 해보았자 집행부의 입장만 곤란할 것 같으니 신년도에 하더라도 금반은 보류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삼 성 의장

- 일응 본 건 건의해놓고 활동하도록  
표결결과 재석 11명중 전원가결

※ 시청 및 각 사업장 교육청 및 각도사무감사 결의안

박찬대 서기 결의안 낭독

◇김 상 대 의원

- 본 건 동의 찬조발언  
표결결과 재석 11명중 전원가결

라. 부의안건

◇김 경 인 의원

-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교 사회 위원회측의 보고에 의하면 신설 국민학교 부지선정 문제가 난색인 것 같으며 시민의 주시리에 있는 중대한 문제로서 당무자들도 시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심사숙고하여야 될 것이

고 내무위원회의 심의도 있어야 할 것이니 본회의 기간을 26일까지 3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재청...3청

◇정 응 표 의원

- 부의장 선거를 조상에 놓고 각기 편리할대로 유회 산회를 번복하고 있는 실정이나 본 의원도 25.6 일경 해상연맹 대표로 상경할 형편 있는 것이니 이대로 폐회하는 것을 요청한다.

김경인 의원 동의 재석 11명중 가 3표 부결

◇김 상 대 의원

- 모 일간 신문지상에 본 의원이 징계대상이 되어 동의 안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천명하여주기 바란다.

◇김 삼 성 의장

- 정응표 의원 1인뿐 이였으나 위법인 것으로 즉시 각하 시켰다.

◇김 삼 성 의장

- 폐회선언 상오 12시 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0월 24일

시의원 임 석 희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